인연 따라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 에누리가 하나도 없다, 자기가 한 대로지

☞ 21면에서 계속

단 모이듯이 모여서 한 식구라고 살았는데 그것도 다 버리고, 자기가 살던 일생을 다 그냥, 자기가 하던 거를 다 놓아 버리고, 자기 몸도 다 버리고 그렇게 스러지는 마당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그렇게 아등바등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한 까닭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삶에 대한 차원도 모습도 인연 인과도 전부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 속에 다 지니고 나오는 거죠. 이 말을 되하고 되하고 이러는 것은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지 허탕허탕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냥, 밥이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뜸을 안 들이고 그냥 푸면은 밥이 설죠. 그와 같이 우리가 뜸을 들일 만큼 들여야만이 밥이 제대로 돼서 맛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뜨내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한 번 보는 데 생각이 동시에 거기서 벌어지는 거니까요. 생각이 잘못됨으로써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바로 말도 잘못하게 되고, 바로 생활도 잘못하게 되고, 행동도 잘못하게 되고, 의식도 잘못 갖게 되고, 정진도 잘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다 한데 합쳐서, 내가 얘기하죠, 항상. "공생인 줄 알아라. 공심인 줄 알아라. 공체인 줄 알아라. 공용인 줄 알아라. 또 공식으로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요. 이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보살이죠. 그대로 보살행이며 그대로 보살로서 영원한 거죠. 거기에서 또 보살 중에도 또 보살로 돼 가지고도 그것조차도 놓아 버릴 수 있다면 그때는 그대로 자유권을 갖고 그대로 부처 아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낚시로 살생을 많이 했던 게 걸려요

질문 저는 머리가 복잡할 때면 낚시를 하러 가곤 했는데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 제가 너무 많은 살생을 했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어떻게 참회해야 될까요?

답변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물에서 노는 거든지 날아다니는 거든지 들에 다니는 거든지, 그런 것이 전부 힘에 따라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올라오면 사람의 고깃덩어린 먹지 않는데 그 대신에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참 묘한 법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말하느냐 하면은 서산 대사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자기 마음이 새 마음으로 들어가서 새가 내려오고 싶으니까 내려왔다 이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영, 영" 해 놓으면 그게 몇이나 됩니까? 그냥 영이죠? 이 모두가 연결돼서 인연 따라서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에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지.

살생이라 했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 관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아닌 자기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그냥 살생이 되는 겁니다. 업보가 되고. 그렇지만 그거를 알고 나오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그 한자리에 모든 것을, 나쁜 게 나오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좋은 게 나오면 '감사해.' 하는 그것으로 다 그게 업이 되지 않고 유전이 되지 않고 또 복수가 되지 않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깐 복수로 연결이 돼서 끝끝내 10대(代)고 20대고 30대고 그냥 쭉 계속해서 복수를 낳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더러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또 나라에 누가 되게 하고, 자기가 그냥 볼품없이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를 자기가 누가 되게 이름을 손상시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뭔 일이냐 하면 보이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자기를 무시하고 이



이름 없는 그 정에 모두
일거수일투족 다 거기다 놓고 중심을 잡아라.
물러서지 말고 다 거기다 놓아라.

운전을 하려니까 그거밖엔 못 살아요. 그거밖엔 못 하거든. 그냥 바깥으로, 물질세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 해 버리니까. 그러나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저절로 그렇게 자기가 그 에너지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에너지가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꾼다 하더라도 난 못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야 비구빈천에 돌고 돌면서 찰나찰나 변함이 오고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돌아가는데, 나투는 거 아세요? 나투는 거는 표현을 할 때, 즉 말하자면 한 발짝 떼 놓고 나면 한 발짝 없어지는 거예요. 찰나찰나 나툰다.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매사 게 다 그렇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바로 그것이 부처가 가능하다. 99% 가능하다. 그런데 무명이라고 그랬죠? 나무에 흙 덮인 것처럼 그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본다.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게 보이진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과학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구해서 내나 또는 농사를 지어서 먹으나 또는 할 줄 아는 거를 하는 거나, 전부가 과학 아닌 게 없습니다. 살다 보면 좀 더 어려운 건 '요렇게 잘해야지'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도 과학입니다, 그게. 어디 과학이 따로 있나요? 심성 없이 어떻게 과학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리를 아는 분들은 그저 저절로 자기 아닌 자기가 물질적인 자기를, 일로 간다면 일로, 일로 가다가 잘못 낭떠러지가 나온다 이러면 낭떠러지 없는 데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켜 주고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 내는 대로예요.

어떤 집은 '주인공, 나는 지금 급해서 집을 그냥 두고 나가는데 집에 도둑 안 들어오게 지켜 줘.' 하고선 나갔더랍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문은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더랍니다,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그 모두가 보이지 않는 데에…,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데서 몽둥이를 들고 철퇴를 들고 '너 죽여 버린다!' 하고 와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놓고 거기서 지키게,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지키게 하고,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걸로 지키게 하는 것이죠. 항상 둘이 아니니깐 말입니다.

색경에 비치는 것도 내 그림자, 여기서 그 색경을 보고 내 모습을 비치게 하는 놈도 그 놈이고 그런데, 이놈이 하자는 대로 색경 속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자기가 안 보이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흉내를 내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근데 악이냐 선이냐, 잘못하는 거냐 잘하는 거냐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운전하는 걸 알아야 된단 얘깁니다. 어느 누구가 잘못 살려고 하고 그럽니까, 잘못하려고 하고. 모두들 번연히 알면서도 잘못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보가, 수없는 갖은 각색의 업보가 다 있건만 그거를 없애는 도리가, 바로 그것이 정수에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걸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팔자 운명도 붙지 않는다. 살생도 붙지 않고 모든 게 다 붙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어, 앞으로 내 죄가 많은데 어쩌랴.' 하지마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분들하고 기복으로 그냥 하는 분들하곤 다릅니다. 기복으로는 형상이나 이름을 보고 기도를 하고 믿고 다니지만, 그리고 거기다 살려 달라고 빌고 그러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도깨비장난밖에 안 되느니라." 양 무제더러도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저 인으로, '웃을 땐 웃고 웃지 않을 땐 웃지 않으면서도 인으로다가 다루고 섭섭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바로, 나는 찾았는데 모두를 다 귀합을 시키지 못할 때는 그때는 대승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한 마음을 말입니다, 관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좇아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자기를 좇아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죽은 세상에 가니까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진데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죽은 세상에는 가 볼 수가 없죠. 죽어야 가 보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내가 곧장 그냥 길을 가야지, 그게 도의 길이건만, 가다가도 얼뜻 쉬고선 여기서 참견하느라고 산란케 굴거든요. 그러면 점점,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것은 귀합을 시킬 수가 없죠.

그 귀합이라는 것도 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진리가 그러하단 얘깁니다. 공생이며, 이 몸속에 있는 것도 공생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한 개체가 그냥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생각에 모두가 이렇게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관습에 의해서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그냥 다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모든 살생도 모든 잘못됨도 다 붙지 않습니다.

위패를 봉안해 놓지 않는 이유

질문 다른 절에서는 49재 동안 위패를 봉안해 놓는데 선원에서는 그때그때 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내가 항상 '위패를 정해 놓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자유스럽게 사는 것과, 죽은 사람도 체가 없이 사는 도리를 알게끔 된다면, 관습과 습이 없어진다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위패를 정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천리만리라도 손가락 하나만 끄덕하면 다 모이는데 왜 그것을 거기다 묶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스님네들한테도 지장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물론이고, 그렇게 된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런 것만 알면 연방 찰나찰나 이렇게 영령들이, 이렇게 조상님들이 댁에 들었다가도 그 도리를, 댁의 마음을 읽어 보고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 보시는데 마음이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접해서 집착이 돼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위패는 당일 해서 당일 소하고 또 고다음에 할 때 또 위패를 새로 해서 또 당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 살거나 부모들이 바깥에 살거나 이럴 때 부모를 모셔왔으면 잘해 드리고 노비 드려서 잘 모셔다 드리는 게 자유 아닙니까. 또 부모가 찾아와서 저거 하면 노비를 줘서 잘 먹여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그 자유를 갖다 강타하고 그냥 매어 놓는다면 그 뒤 문제는 어떻게 하리까?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봤는데…

질문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저의 집 보살이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봤는데 그 사업을 더 하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불안해하면서 저를 말리는데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어찌해야 좋을는지요.

답변 그거는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고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마음들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보살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면 그냥 하는 척하면서 그냥 모든 걸 놓고 그렇게 가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글로 가느냐, 이걸 올바르게 이렇게 믿는냐 이러고 하는 것도 댁의 마음에 들어 있어요.

모든 게 자유예요. 자유롭게 살자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렸어요. 그 마음에 달렸다는 그 문제가 그렇게 무섭고 너무나 커서 태산 같다고 했습니다. 한 생각이 태산을 버리느냐, 한 생각이 태산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깐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그 사주 보시는 것도 그 한마음 거기다 놓으시고 모든 거를 다, 생활할 때 모든 거, 풍기는 거 모든 거를 거기다가 관하시고 그렇게 그냥 편리하게 사신다면 차차 나아지시겠죠.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